



인간의 상상력은 끝이 없다지만, 그러한 상상력은 순수한 영혼의 상태를 유지하고 있을 때 더 잘 발휘되어진다. 그리고 순수한 영혼의 상태를 유지하는 좋은 방법 중 하나는 적당한 온도의 물에서 목욕하는 것일게다.

목욕물 속에서는 누구나 할 것 없이 어린 아이같은 마음을 갖게 된다. 그 이유는 알몸이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따뜻한 물 속에 느긋하게 몸을 담글 때는 마치 멀리 떠났던 고향으로 되돌아간 것 같은 느낌의 귀소 본능이 되살아나기 때문이다. 그것은 아이

또한 아르키메데스가 “모래알의 수를 셈하는 방법”을 발견할 만큼 자신의 상상력을 무한으로 확장시켰던 것도 바다가 있기에 가능하였다. 물론 아르키메데스의 방법이란 ‘일만만’(一萬萬), ‘억억’(億億) 등 처럼 다소 어색한 이름을 붙인 것이긴 하지만, 당시로서는 유한과 무한의 세계를 나누었다는 사실만으로도 가치 획기적인 발견이었다. 이는 목욕물에서 숙달된 아르키메데스의 자유로운 사유의 덕이었던 것이 아닐까.

그러나 우리가 무엇인가를 골몰히 생각하고 있을 때 ‘찬물을 끼얹는다’면, 물은 오히려 인간의 자유로운 상상력을 방해할 것이다. 따라서 뜨거운 물이건, 찬물이건 어떠한 환경이 주어지더라도 그 환경에 끌려 다니지 않으면서도 일관되게 마음의 안정을 유지시킬 수만 있다면, 그 사람이야말로 진정한 자유인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런 점에서 석가모니, 예수 등을 비롯하여, 다음의 사람도 진정한 자유인이다.

어느날 대머리에 사자코, 볼룩한 올챙이 배, 그리고 가슴과 팔다리에 덩수룩한 털이 난 한 사나이가 그의 친구와 함께 길을 걷고 있었다. 그때 어떤 악한이 그의 모습을 조롱하면서 뒤에서 돌을 던졌다. 이를 본 친구가 “자네가 가만히 있다면 내가 대신 복수를 하겠네”하면서 나서자, 그 사나이는 “자네는 개가 짖으면 같이 짖겠는가”하며 묵묵

물과 자유인

들이 책상 밑이나 장롱 속을 가장 좋아하는 놀이장소로 택하는 이유와 비슷하다.

그렇다 하더라도 지나치게 뜨거운 물은 불편하다. 아이들이 물놀이는 좋아하면서도, 뜨거운 물 속에 몸을 담그는 어른들이 “어, 시원하다”라고 말하는데 대해 배신감을 갖는 이유도 인간의 원초적 고향인 어머니의 자궁에서 전혀 겪어 보지 못했던 온도이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르키메데스(Archimedes, B.C. 287-212)의 경우 처럼 물은 인간의 사유를 자유롭게 한다.

목욕탕의 넘치는 물은 ‘아르키메데스의 원리’를 연상시킨다.

이 운 형
(경기대 교수, 철학)

히 가던 길을 재촉하였다.

비록 그 사나이의 외모는 볼품 없었지만, 그의 정신은 늘 극기심으로 가득하였으니, 그가 바로 서양역사상 가장 위대한 철학자로 칭송받는 소크라테스(B.C. 469-399)인 것이다.

소크라테스는 ‘소’씨 문중에서 태어났는데, 그의 아버지 소프로니스코스는 조각가였고, 어머니 파이나레테는 산파였다. 여기서 어머니의 직업을 눈여겨 볼 필요가 있다. 산파는 산모가 아기를 잘 낳을 수 있게끔 도와주는 역할만 한다. 즉 산파는 스스로 아이를 낳는 사람이 아니다.

소크라테스의 철학적 방법을 산파술이라고 부르는 이유도 거기에 있다. 다시 말해 소크라테스는 “나의 말이 곧 진리인데, 나의 말인 즉 이러 이리하다”라고 하면서 자신이 생각하는 진리를 누군가에게 주입시킨 적이 한번도 없다. 그는 다만 상대방과 대화를 하는 가운데 상대방 스스로 진리를 깨닫게 하거나, 적어도 상대방 자신이 “사실은 내가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있구나”라는 점을 깨우치게 도와만 주었던 것이다.

소크라테스는 자기와 대화를 희망하는 자와는 밤새도록 이야기를 나누었다. 그러던 어느날 그는 청년들과 함께 그리이스의 신화에 나오는 제우스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었다. 소크라테스가 한 청년에게 물었다. “나는 잘 몰라서 묻네만, 제우스는 착한

생활을 하겠지?” “물론이죠. 그 분이야 말로 신 중의 신이신데요.” 그 청년은 당연하다는 듯 말했다. 그러자 고개를 끄덕이면서 소크라테스가 다시 물었다. “역시 잘 몰라서 묻네만, 제우스는 인간인 여성들과 혼인하여 여러 영웅들을 낳았으며?” 그 청년은 소크라테스가 그 이야기를 정말 모를까 의심스럽기는 했지만, 자신이 알고 있는 제우스와 여성들과의 관계, 또 그 사이에서 낳은 자식들이 펼치는 영웅담을 한참동안 이야기 하였다.

눈만 껌벅거리면서 청년의 이야기를 다 듣고난 소크라테스가 다시 물었다. “제우스에게는 본처가 있지?” “네.” “본처가 있는 사람이 다른 여성과 혼인하여 아이를 낳는 것이 착한 생활인가?” “.....” “착함의 기준이 뭐라고 생각하나?” “.....”

청년이 아무 말도 못하고 주춤거리고 있을 때, 옆에서 이 대화를 듣던 한 사람의 얼굴색이 하얗게 변하고 있었다. 그는 소크라테스의 동태를 감시하여 상부에 보고하는 기관원이었던 것이다.

당시 그리이스의 종교에서 제우스에 대해 비방한다는 것은 기독교인들이 하나님을 욕되게 한 일에 견줄 만큼 보통 불경죄가 아니었다. 더구나 그 기관원은 일전에 소크라테스가 자신의 무지를 깨우쳐 주었음에도 그 무지를 극복하려고 하기는 커녕, 다른 사람들 앞에서 자기를 망신준

것으로 생각하여 내심 소크라테스를 미워하고 있던 참이었다.

여하튼 소크라테스가 사형선고를 받은 죄목이 “국가에서 모시는 신을 인정치 않고, 청년들을 타락시킨다”는 것이었는데, 거기에는 그와 같은 사연이 있었던 것이다.

흔히 말하길 “소크라테스는 인류에게는 위대한 스승이지만, 그의 결혼 생활은 지옥과 같았다”고 한다. 그러나 그것은 과장된 것이다. 왜냐하면 악처의 표본으로 불리는 그의 처 크산티페는 성격이 몹시 거칠고 잔소리가 몹시 심하기는 했으나, 소크라테스도 한 집안의 가장으로서는 문제가 있었던 것이 사실이기 때문이다.

남편이라고 있긴 있는데, 변변한 수입도 없지, 집도 없지, 거기다가 신발하나 없어 맨발로 다니면서 식구들이 밥을 먹는지 굶는지 신경도 안쓰는 남편에게 어떤 아내가 잔소리를 안하겠는가! 소크라테스의 가난한 모습을 차마 볼 수 없었던 친구들이 집지을 땅, 가족신발, 노예 등을 헌납하겠다고 했을 때 잔뜩 기대하고 있던 크산티페를 옆에 두고 소크라테스가 “내가 그걸 받으면 참 이상할거야”라면서 거절했을 때, 크산티페의 마음은 오죽했겠는가!

그러면서도 소크라테스가 독배를 마시기 직전, 그의 발목을 부둥켜 안고 우는 크산티페의 모습은 한 지아비만을 평생 믿고 살

아온 가뜰스한 아낙네를 보는 듯하다. 정말 그녀가 악처였다면, 소크라테스에게 밥을 해 주기는 커녕 갓난아기를 방에 팽개치고는, 돈 벌러 간다면서 집을 나가도 몇번은 나갔을 것이다.

하지만 그녀의 잔소리가 세계적 수준이었던 것만은 확실하다. 소크라테스의 친구들이 이구동성으로 “이 세상에서 가장 참을 수 없는 것은 부인의 잔소리”라는데 이의가 없었으니 말이다.

그녀의 잔소리에 완전히 단련된 사람은 오직 소크라테스 뿐으로, 사람들 앞에서 그녀가 “당신이 이날 이때까지 나한테 해준게 뭐가 있어. 호강 한번 제대로 시

켜 줘서, 돈을 벌어 왔어. 노상 밖에서 사람들과 주접이나 떨 줄 알았지”라면서 소크라테스를 나무라다가, 급기야는 구정물을 끼었을 때에도 그는 히죽 웃으면서 “그것 봐, 크산티페가 으르렁대고 나면 다음엔 꼭 소나기가 오지”라면서 덤덤히 넘겼던 것이다.

그리하여 한 청년이 소크라테스에게 “결혼은 하는게 좋습니까, 안하는게 좋습니까?”라고 물었을 때 “어느 편이든 자네는 후회하게 마련일거야”라고 충고한 것도 자신의 결혼생활에 큰 불만은 없었음을 시사해 주는 것이다. 만일 지옥같은 결혼생활이었

다면, 소크라테스는 거의 반사적으로 “절대 결혼하지 말게”라고 충고해 주었을 것 아닌가!

“가난은 약간 불편할 것일 뿐이다”라는 어느 소년가장의 말처럼 우리는 우리의 마음자세에 따라 어떤 환경에서건 자유인으로 살 수 있다. 옆 집 영이 엄마의 미모와 철수 아빠의 재산을 비교하면서 사는 한, 우리의 마음은 감옥에 갇혀 있는 셈이다.

이러한 겨울에는 목욕탕의 따뜻한 물 속에서 잠시라도 자유인이 되어 보는 것도 세속에 시달리는 생활인의 작지 않은 보람일 것이다.